찾아가는 '화순 주치의' 어르신 건강 지킴이 역할 톡톡

26개팀 구성 13개 읍·면 경로당 426곳 매주 1회 순회 진료

혈압·혈당·치매 기초 검사에 물리치료…정서안정 교육도

화순군이 3년째 시행하고 있는 '마을 주치의'가 경로당 426곳을 매주 1회 돌며 어르신 건강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화순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추진한 '화순 주치의'를 올해 3년 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순군보건소의 '마을 주치의'는 13개 읍·면 경로당 426곳의 고령 주민을 찾아가고 있다.

주치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 인력으로 구성됐다.

보건소 1곳, 보건지소 12곳, 보건진료소 13곳 등 26개 팀을 구성해 매주 1회 마을 경로당을 방문한다.

이들은 진료와 의료 상담, 검사 등 통합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주치의들은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상담, 혈압·혈당 등 기초 검사를 진행한다. 기초 검사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상담을 벌인다. 60세 이상 주민에게는 '치매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치매 검사 결과에 따라 2차, 3차 진단 검사 비용도 화순군이 지원한다.

마을 주치의가 백아면 맹리에서 진료한 김모(85)씨는 검사 과정에서 고혈압을 발견해 병원으로 연계했다. 김씨는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혈관이 막혔다는 소견에 따라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기초 검사 외에도 화순 주치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리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기압 치료로 뭉친 다리를 풀어주고, 초음파 치료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주민들의 통증을 완화하고 있다.

마을 주치의는 때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집도 직접 찾아가고 있다.

화순읍 앵남리 정모(90)씨 집을 찾은 마을 주치의들은 그의 엉덩이에 발생한 욕창을 치료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욕창이 심해지지 않도록 보호자 교육도 함께 했다.

화순군의 13개 보건진료소는 '노인 정서안정' 교육을 진행하며 고령 주민의 마음 건강도 살피고 있다.

참가자들은 월 2~3회 밴드 체조,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등에 참여하며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챙기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지난달 주민들과 목마가렛, 시클라멘, 임파첸스, 스파트필름, 카랑코 등 반려식물을 함께 심으며 정서안정 교육을 벌이기도 했다.

박미라 화순군 보건소장은 "2024년 보건소 비전은 누구도 소외 없는 건강 화순 실현"이라며 "화순군보건소가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화순군 마을 주치의들이 한 경로당을 찾아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등 검사를 하고 있다.

농협 함평군지부·나비골농협 임직원들이 지난 14일 나산면 벼 육묘장을 찾아 일손을 돕고 있다. 〈농협 제공〉

농협 함평군지부·나비골농협 영농철 일손돕기

농협 함평군지부와 나비골농협이 지난 14일 나산면 벼 육묘장을 찾아 일손을 도왔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농협 임직원 20여 명은 벼 육묘장에서 육묘 파종과 육묘 상자 녹화 작업을 도왔다.

나비골농협은 해마다 7만장의 벼 모판을 생산해 지역 농가 500가구에 공급하고 있다.

농협 함평군지부는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와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광재 농협 함평군지부장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농협 임직원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로 희망농업·행복농촌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다시 찾게 될 맛"…나주배 베이커리·디저트 나온다

농산물 활용 디저트 상품개발 교육

카페 운영·창업예정자 19명 수료

건강과 맛 모두를 만족시킬 나주배를 활용한 다양한 베이커리와 디저트 신메뉴가 개발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농업기술센터가 10회에 걸쳐 진행한 '지역농산물 활용 디저트 상품개발 교육'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창업을 꿈꾸는 주민과 카페 운영자 등 총 20명이 참여해 19명이 최종 수료했다.

특히 나주 특산물인 배를 첨가한 레시피를 전수하고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과 다양한 실습을 통해 신메뉴 개발 의욕을 북돋웠다.

교육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리얼배빵' 교육은 다양한 디저트 신메뉴를 선보이는 전시회로 이어졌다.

디저트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베이커리는 나주 리얼배빵, 흑미쌀 배잼 식빵, 시금치 소금빵 등이다.

전시회에서는 배 특유의 천연 단맛이 어우러진 빵과 디저트류는 소비자들이 다시 찾게 될 맛이라는 품평이 이어졌다.

교육생 중에선 직접 가공한 배잼과 배말랭이를 활용해 보다 풍미를 끌어올린 꽈배기, 깜빠뉴, 배 크럼블 등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나주배가 첨가된 다양한 디저트를 개발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인과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병태(맨 왼쪽)나주시장이 '리얼배빵 디저트 상품개발 교육 수료식·전시회'를 찾아 실습용으로 개발한 신메뉴들을 살펴보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공모

6월 7일까지…전국민 대상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 병행

장성군이 오는 6월7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모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30만원, 장려 5명 10만원이며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24~26일 열리는 황룡강 길 동무 꽃길축제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장성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주문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장성쌀과 마스크팩이 담긴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기부자가 공감하는 참신하고 실용적인 기금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관계자들이 마량 앞바다에서 다음 달 치르는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감성돔과 낙치 치어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전국 낚시대회 앞두고 치어 방류

감성돔 12만마리·낙지 3000마리

다음 달 전국 규모 낚시대회를 여는 강진군이 감성돔과 낙지 치어를 바다에 흘려보내며 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강진군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주기적으로 열 예정인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를 앞두고 최근 감성돔 치어 12만마리와 낙지 치어 3000마리를 마량 앞바다에 방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류에는 7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날 서순철 강진 부군수와 강진군 의원, 수협 조합장, 낚시대회 준비위원 회원, 어업인 등 25명이 참석했다. 감성돔과 낙지는 어업인과 낚시꾼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다. 이들 어종은 이동 범위가 넓지 않아 수산자원 조성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

감성돔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 '흑조어'라 불렸으며, 낚시객들에게 '손맛의 제왕'으로 꼽힌다. 낙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감성돔과 낙지 방류는 어족자원 고갈을 염려하는 어업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군 차원에서 지속적인 방류로 지역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과 해양환경 보존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흥군 급식지원센터 '오감 놀이터 체험교실'

급식소 15곳 어린이 300명 대상

장흥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달 말까지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오감 놀이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오감 놀이터 체험교실은 지역 어린이 급식소 15곳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곳당 3회의 교육을 벌일 예정이다.

첫 번째 교실에서는 '깜박 오감아 놀자 어디 있니'를 통해 어린이 오감·시각 교육을 진행한다.

두 번째 교실에서는 '쉿 무슨 소리야? 만져보자'의 청각·촉각 교육, 세 번째 교실에서는 '킁킁 무슨 냄새지? 먹어보자' 후각·미각 교육이 이뤄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영유아기는 다양한 경험과 자극이 중요한 시기"라며 "식재료를 이용한 오감 활동을 통해 신체감각을 발달시키고 식재료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